

고흥군, 여성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한 건강 지원

질환 특화 건강검진비 90% 지원
읍면 사무소 사전 신청해야 혜택
근골격계질환 등 취약 여성 대상
고흥종합병원·녹동현대병원서

고흥군이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 건강검진비 90%를 지원하며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10일 고흥군에 따르면 보조금 3600만

원을 투입해 여성어업인을 위한 특화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직업 질환을 조기에 검진해 여성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은 어업활동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취약한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검진 비용의 20만 원 중 18만 원을 지원한다.

검진 항목으로는 6대 근골격계 질병, 굴밀도 측정, 혈액검사, 청력검사 등이 포함되며 검진 후에는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전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된 검진 병원에서 검진받은 후 검진비의 10%를 납부하면 된다.

고흥군에 지정된 검진 병원은 고흥읍의 고흥종합병원과 도양읍의 녹동현대병원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많은 여성어업인이 특화 건강검진을 통해 직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직업 질환으로 인한 고통 없이 어업에 종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평화염원 시민합창단 단원 모집
순천시, 19일까지 76명

순천시는 ‘2024 여순 10·19사건 주간 인문행사’에 참여할 ‘평화염원 순천시민합창단’ 단원을 오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화염원 순천시민합창단은 (재)순천문화재단이 주관하며 76주기를 맞이하여 여순사건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이다.

여순 10·19사건을 함께 기릴 76명의 시민을 모집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화염원 순천시민 합창단은 평화와 치유를 위한 노래를 준비하여 10월 18일 개최되는 여순사건 추모 전야제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76주기 추념제를 시작으로 여순사건의 아픔을 알리고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여순사건 특별전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이해에 참여하는 청소년예술제 및 평화인권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www.cfsc.or.kr)에서 확인하거나 순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061-746-2912)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벼 수확 전 병해충 방제 철저 당부
장흥군, 벼멸구 확산 우려

장흥군이 벼 추수철을 앞두고 벼농사 후기 병해충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예찰 결과에 따르면 지속되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하여 벼 병해충의 증가가 심해지고 있다.

중국 남부지역에서 오는 흑명나방과 벼멸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장흥군은 흑명나방 등 생육 후기 병해충 발생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예찰·방제단을 운용하고 벼 농업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신속한 예찰과 방제지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수확기를 앞두고는 농약잔류기간을 고려해 약제 사용량과 살포방법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수확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들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예찰을 통한 조기 발견과 예방적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확 전 농가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지도와 예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방제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추석맛이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
순천시 왕조1동

순천시 왕조1동은 13일 조례호수공원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이웃과 정을 나누며 함께 즐길 수 있는 한마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석! 달도 보고 정도 따세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구성됐다.

축제는 전통 놀이 체험, 세계 의상 체험, 나만의 가면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난다, 댄스팀, 바이올린, 바리톤 가수, 대중가요 가수 등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도 가수다’ 노래자랑은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래자랑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2일까지 사전접수하면 된다.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양병기 왕조1동 체육회장은 “이번 축제가 주민들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 추석 한마당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반려견들이 순천만 갯벌에서 뒹굴고 있다. 지난 7일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거차마을 뽕배체험장 일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갯벌 체험행사’가 열렸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별량면, 반려동물 동반 갯벌 체험

순천시 별량면(면장 허성무)이 지난 7일 마산리 거차마을 뽕배체험장 일원에서 ‘2024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순천만 갯벌 체험행사’를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접수 체험객 150명과 지역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행사에서는 반려동물 갯벌체험, 반려동물 풀장, 반려동물 타로 등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비반려인을 위한 일반인 갯벌체험, 동물가면 노래자랑, 갯벌 레크리에이션 등도 마련되어 거차마을을 찾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의 추억을 선사했다.

허성무 별량면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이번 갯벌 체험을 통해 값진 추억을 만들었기를 바란다”며 “순천만 갯벌을 끼고 있는 별량면이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만큼,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비상의료관리 상황반 운영

순천시는 추석 전후 2주(11~25일)를 추석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 응급의료 상황관리, 응급의료체계 점검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성가롤로병원, 순천의료원, 순천한국병원, 순천제일병원, 순천중앙병원 등 응급의료

기관 5개소에 대해서는 팀장급 이상으로 ‘1:1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진료 상황을 관리하고 사전·사후 현장점검을 통해 응급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연휴기간에는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156개소와 약국 98개소를 운영하고 코로나19 24시간 발열 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으로 순천의료원, 순천중앙병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농촌주민과 고향을 찾아온 귀성객 대상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진료소 22개소도 순환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는 순천시 및 순천시 보건소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건소 비상의료관리상황반(061-749-6905)에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일부 대학병원의 응급실 진료 축소 및 부분 중단 등의 여파로 추석연휴에 지역에도 미칠 진료 차질 우려를 해소하고자 순천시의사회와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경증환자는 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코로나19 환자는 발열 클리닉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BS청춘마켓 문 열어

보성군은 오는 12일 오전 9시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무대에서 BS청춘마켓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 있는 BS청춘마켓은, 2021년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년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청년창업 공간으로 조성했다.

BS청춘마켓은 청년창업 공간, 공유오피스 및 휴게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년창업 공간에는 기존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 부족한 아이템 위주로 천연비누, 핸드메이드 소품, 천연원석 액세서리, 목공 소품 공방, 네일숍, 녹차 부각 판매장, 애견용품 판매장으로 총 7개 점포가 입점했다.

이날 개장식은 추석 대목 장날에 맞춰

개최되며 식전 공연, 환영사, 입점 업체 소개, 테이프 커팅, BS청춘마켓 장보기, 식후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밖에 개장 기념 9월 한 달간 일부 품목 최대 20% 할인 또는 상품 증정 이벤트를 제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허호형 인구정책과장은 “추석 대목 장날에 개장식을 준비했으니, 장보기를 하시면서 BS청춘마켓을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톡톡 튀는 흥보 마케팅으로 BS청춘마켓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일류 주민자치 클래스’ 운영
순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순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순천대학교와 공동 주관해 지방자치선도형 지역리더 양성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4년 순천시 ‘일류 주민자치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류 주민자치 클래스’는 주민자치력 향상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주민자치리더 양성 전문 교육과정이다. 12월 2일까지 총 9강좌(18시간)로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전공강의실에서 운영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의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주민자치의 기원과 역사, 주민자치의 원리, 주민자치 사례, 순천형 주민자치의 이해, 사회적자본과 마을발전, 우리 삶의 주민자치 설계, 주민자치의 발전과 나의 미래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민자치의 기본부터 심화 과정까지 심도 있게 구성됐다.

일류 주민자치 클래스 참여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누리집(http://maeul.sc.go.kr/) 또는 전화(061-749-4480)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민들을 위해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한 데 큰 의미가 있고, 일류 주민자치클래스를 통해 순천의 지역발전을 선도할 지역사회 리더가 많이 배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총 30명의 대학생 명예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순천대학교와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